

건설소식

법정 보험료 건설업 부담 최고로 높다

노동비용의 10% 차지

최 근 건설업계의 현안이 되고 있는 4대 보험 부담 급증과 노조문제에 따른 업체들의 노동비용 지불이 전체산업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07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작년 건설업체의 1인당 월 노동비용이 전년에 비해 18만6천원(5.6%) 증가한 351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3개 산업 가운데 7번째 금액이고, 평균 364만3천원에 비해서도 다소 낮았다.

그러나 근로자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법정복리비 부담액은 35만3천원에 달해 59만원의 광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체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0%로 광업의 15.7%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전체 산업 평균(24만4천원)에 비해서도 44.7%나 많았고 비중은 3.3%p가 높아 전산업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1인당 산재 보험료가 13만2천원으로 광업(40만8천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의 법정복리비는 지난 2004

년 24만8천원에서 3년만에 10만원 이상(42.3%) 급증했고, 특히 올해부터는 4대 사회보험의 의무가입 및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등으로 업체들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가 없을 경우 부담 노동비용은 310만8천원에 불과했으나 노조가 있을 경우 554만원으로 78.3%가 급증, 전산업에서 최고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플랜트 교육생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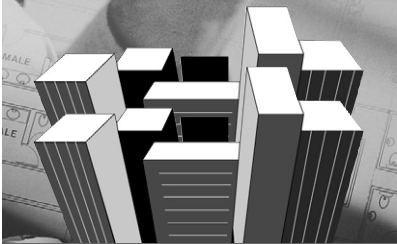
기술교육원 "기업 채용 문의 쇄도"

건 설기술교육원이 건설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고 있는 해외건설플랜트 전문인력들에 대한 인기가 상한가를 치고 있다.

교육원에 따르면 인천 본원과 서울 분원 2곳에서 제1기 해외플랜트건설 기술인력 양성과정 입교식을 갖고 교육에 들어갔다.

이 과정은 해외건설플랜트 엔지니어 부족문제 해소 등을 위한 정부의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과정이다.

이번 과정에는 어학, 학점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심사와 서류전형을



CONSTRUCTIONNEWS

통과해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은 200여명의 대학생이 최종 선발됐다.

실제로 선발인원의 토익 평균이 830점, 학점 평균은 3.6점에 달했으며 과정 이수 중 네 차례의 시험에서 수준이 미달되면 즉각 탈락되는 등 엄격한 학사관리를 받고 있다.

특히 중앙대와 경희대 등 일부 대학교에서는 이미 이 과정 이수성적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학점 인정 학교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입교 당일에도 해외건설플랜트 전문인력 과정 학생에 대한 채용을 문의해오는 등 벌써부터 건설업체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과정에는 해외공사에 실제 활용이 가능한 해외건설 실무영어과정이 상시 과정으로 들어 있고 플랜트공사 일반과정과 플랜트건설 공사 실무, 플랜트 프로젝트 관리, 플랜트

건설 기술실무 등과 함께 워크숍, 플랜트현장 견학, 미니 취업박람회 등도 포함돼 있다.

교육원은 수료 대학생들에게는 취업기회를, 건설업체에는 우수한 플랜트엔지니어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채용의뢰(문의 032-4600-265)를 받고 있다.

해외수주 500억 달러 넘본다

7월말 347억달러...목표 재조정

올 해 연간 수주 500억달러, 누적수주 3,000억달러라는 해외건설 신기록이 수립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7월 말 해외건설 수주액(347억달러)이 사상 최단기간에 300억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일등공신은 쿠웨이트 알주르 정유

공장 프로젝트 4건(63억달러)을 수주(7월17일 계약)한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메이저 4개사이다.

이런 추세라면 사상 최대 연간수주액(작년 398억달러) 갱신은 물론 연간 수주액 500억달러도 돌파할 태세다.

국토부는 “450억달러는 무난하고 500억달러 돌파도 가능하다”고 밝혀 올해 수주목표를 재조정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500억달러를 원화로 환산(외환은행 환율기준)하면 50조7,300억원이며, 이는 제2의 외환위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전국 미분양 주택자금(업계 추산 25만가구, 2억원씩 50조 원)을 충당하고도 남을 액수다.

해외 누적수주 3,000억달러 달성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7월말 기준 누적수주액(2,872억달러)을 고려할 때 올해 수주고가 475억달러만 기록하면 넘기 때문이다.

1965년 첫 해외건설 진출 이후

●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건, 백만불, %)

지역별	1965. 1. 1 ~ 현재		2007. 7. 31		2008. 7. 31		증감율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385	287,216	322	17,178	392	34,734	102.2
중 동	2,632	168,152	66	11,155	90	20,755	86.1
아시아	2,911	98,176	195	3,489	235	9,631	176.1
아프리카	237	9,684	19	1,071	27	1,178	10.1
유럽	132	8,033	11	891	16	914	2.5
기 타	473	12,171	31	572	24	2,256	294.4

● 공종별 수주현황

(단위 : 건, 백만불, %)

지역 별	1965. 1. 1 ~ 현재		2007. 7. 31		2008. 7. 31		증감율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385	287,216	322	17,178	392	34,734	102.2
토목	1,532	70,970	35	1,919	64	6,252	225.8
건축	2,193	85,871	66	2,625	80	6,227	137.2
산업설비	1,087	118,374	44	12,214	57	20,822	70.5
전기	418	7,324	26	304	38	1,033	239.1
통신	77	2,079	0	0	3	19	16,013.8
용역	1,078	2,598	151	116	150	381	230.0

● 최근 7년간 추이

(단위 : 백만불)

구분	'02	'03	'04	'05	'06	'07	2008
연간실적	6,126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5,000예상
7월말 현재	3,499	2,208	9,766	6,239	10,495	17,178	34,734

● '08년도 국가 및 업체별 수주실적

(단위 : 건, 백만불)

순위	국가별			업체별		
	국가명	건수	금액	업체명	건수	금액
계	70개국	392	34,734	291개사	392	34,734
1	쿠웨이트	9	7,450	현대건설	14	6,049
2	카타르	8	4,295	GS건설	7	4,518
3	U.A.E	14	2,985	대림산업	2	3,078
4	사우디	24	2,765	SK건설	4	2,835
5	카자흐	17	1,866	포스코건설	25	2,643
6	중국	45	1,675	대우건설	6	1,987
7	태국	8	1,524	두산중공업	4	1,668
8	필리핀	16	1,342	우림건설	1	1,558
9	베트남	60	1,326	삼성물산	5	839
10	칠레	2	1,305	STX건설	8	791
기타	60개국	189	8,201	281개사	316	8,768

1,000억달러 달성(1993년)에 29년, 2006년 2월 2,000억달러에 이르는 데 12년이 각각 걸렸다.

3,000억달러를 넘어설 경우 1,000억달러 추가수주 소요기간을 불과 2년10개월로 단축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수립하게 된다.

고유가 추세 속에 급증하는 중동지역 발주물량에 지역, 공종별로 튼튼해진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 체력을 고려할 때 달성 전망도 밝다.

해외건설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중남미의 올해 수주고(17억9,800만달러)가 작년 말 누적수주액(40억5,400만달러)의 절반에 달했고 플랜트에 자리를 내줬던 토목·건축수주 비중(20%→35%)이 살아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수주(3억8,100만달러)마저 작년 동기의 3.3배, 작년 말 누적액(25억9,700만달러)의 15%에 달했기 때문이다.

건설업 상반기 재해율 감소

노동부, 재해지수는 증가

올 상반기 건설업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했으나 발생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008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발표를 통해 상반기 건

설업에서 산업재해자가 총 9,182명(사망 33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8,678명(사망 301명)에 비해 504명(사망 31명)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로 보면 재해자가 5.8%, 사망자는 10.3%나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건설기성액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연초 건설경기가 전년 동기에 비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건설공사가 지난해 초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됐고, 근로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재해 발생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무려 40명이 사망한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도 건설업 재해와 사망자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건설업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재해발생률이나 월별 재해자 수에서는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어 건설업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월별 산업재해 증감률(전년동기대비)은 △1월 17.0% △3월 13.4% △5월 -0.1% △6월 -4.6%로 올 들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연초 이후 건설공사 일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인 재해율은 0.29명으로 전년 동기 0.32명에 비해 9.38% 감소했다.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만인율에서도 건설업은 같은 기간에 1.10명에서 1.06명으로 3.64% 감소했다.

에너지 40%줄인 아파트 공급

주공, 내년 하반기부터

주공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에너지 40% 이상 줄이는 에너지절약형 휴먼시아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분양주택의 단열을 강화토록 설계, 내년 하반기부터 건물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휴먼시아를 공급기로 했다.

주공 휴먼시아의 에너지절약형 기술은 △외벽·외장재 단열성능 강화 △U-IT기술 접목 에너지 절감 △고효율 기자재 사용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으로 모아진다.

주공은 아파트 벽체의 단열재 두께를 현재 50mm에서 80mm로 늘리고 창문 유리를 22mm 로이(Low-e) 복층유리 2중창으로 설치, 단열성능을 30% 이상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U-IT 에너지절감기술과 관련해 취침시간에 거실과 주방의 난방이 알아서 꺼지고, 일어나기 전에는 난방이 시장되도록 제어하는 온도조절기를 홈네트워크에 연동기로 했다.

주공은 조명자동제어를 포함시킬

경우 U-IT에너지절감시스템에서 난방에너지가 최대 25%가량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주택 환기장치에 배출되는 실내 열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폐열회수용 환기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고효율 인증 기자재를 휴먼시아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 급탕과 지열 이용 냉난방 등을 부대시설에 설치하고, 아파트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점차 확대 배치키로 했다.

주공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모든 분양주택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설계를 적용해 내년에는 40%, 오는 2010년에는 50% 이상의 에너지절감 아파트를 선보일 방침”이라면서 “향후 이들 아파트는 가구당 해마다 26만~38만원의 난방비 절감이 가능, 에너지 절감을 위해 추가 투입된 공사비가 입주 후 7~9년이면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공은 에너지절감 요소기술을 의정부 민락지구 2개 단지(1,660가구)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루미덕트형 위생도기 주목

욕실에 LED조명 제품 선보여

‘**빛**’을 활용한 디자인 상품’이라는 의미를 지닌 루미덕트(Lumiduct)형 위생도기 제품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세대 광원으로 손꼽히고 있는 LED(발광다이오드)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욕실의 루미덕트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욕실용품 전문업체인 아메리칸 스탠더드 코리아는 최근 욕조 내부에 LED 특수조명을 설치한 제품을 내놨다.

욕조에 물을 채우면 물 흐름에 따라 LED 조명의 빛이 은은하게 번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탈리아의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조셉 로넬이 피라미드와 루브르 박물관의 기하학적인 건물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것이다.

아메리카 스탠더드 코리아 관계자는 “일부 고급 콘도, 빌라, 주상복합 등지를 중심으로 관련 제품의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개성적인 욕실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영업점 판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아이에스동서로 통합된 위

생도기 전문업체인 구(舊) 동서산업은 공간 효율을 높인 비데일체형 양변기를 선보이면서 야간에 욕실의 전기를 켤 필요가 없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즉 비데 내 LED조명 버튼을 누르면 욕실 바닥과 변기를 자체 전력으로 환하게 비춰준다는 것이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양변기와 비데를 결합한 제품은 분리형보다 가격이 2배가량 비싼 편”이라면서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데에 다양한 기능을 접목시킨 아이디어 제품을 출시하는 데 위생도기 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의 최고급 위생도기 제품들이 자재상가에 수입되면서 스테인·바디 샤워기에 LED조명을 접목시켜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고 △장애인, 노인 등이 욕실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욕실 외부 LED조명의 색깔이 변하고 경고음이 들리는 등의 제품이 등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색깔과 감성을 넘어 예술적인 가치까지 높이기 위한 루미덕트형 위생도기 제품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